

야외교육활동 안전사고 담론에 관한 미디어 프레이밍 고찰 : 사설해병대 캠프사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f Media Framing on the Discourse of Safety Accidents Occurring during Outdoor Educational Activities : Focusing on the Press Release Example of Marine Corp Camp

이우진, 임태성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부

Woo-Jin Lee(facpr@naver.com), Tae-seoung Lim(sande100@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야외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의 관련성을 탐고자 2013 해병대 캠프 사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설정 기간은 해병대 체험캠프가 급격히 증가한 대한민국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일인 2010년 3월 26일부터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 후 2013년 7월 21일까지 보도된 뉴스보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검색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전 138건, 사건 발생 후 73건, 총 211건의 자료를 귀납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해병대 캠프 보도는 크게 사건전과 후로 나누어져 긍정적 미화 프레이밍과 부정적 프레이밍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전의 프레이밍은 야외체험 활동에 관하여 극기체험을 통하여 인내심과 자립심을 키움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사고 발생 후에는 늘 그렇듯이 안전 불감증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이중적 보도 행태의 프레이밍은 자칫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언론은 보도 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야외교육활동 | 안전사고 | 미디어프레이밍 | 해병대캠프 |

Abstract

This study selected the Marine Corps camp accident in 2013 as its subject and analyzed it in order to explore the relevance of media framing on discourse on the safety of outdoor experience activities. Data were collected from search sites provided by news coverage data from March 26, 2010 when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corvette Cheonan occurred in South Korea, which had seen a surge in Marine Corps experience camps, to July 21, 2013, a few days after the Marine Corps camp accident. Data about a total of 211 cases 138 cases before the Marine Corps camp accident, and 73 cases after the accident were induc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news coverages on the Marine Corps camp were largely divided into positive framing that glamorized outdoor experience activities before the accident and negative framing after the accident. To put it concretely, the framing before the accident tended to glamorize outdoor experience activity as the best educational program which helped the participants to enhance their patience and sense of independence through boot camp experience, thereby increasing their self-esteem and arousing their cooperative spirit as members of society. However, after the accident media framing tended to publicize insensitivity to safety. The media framing characterized by dualistic coverage is considered to be an obstacle to the spread of safety culture, which is required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fore, media need to maintain more cool-headed and objective attitudes when reporting news.

■ keyword : | Outdoor Educational Activities Science Safety Accidents | Media Framing | Marine Corp Camp |

I. 서론

오늘날 스포츠의 대상과 영역이 다변화되고, 레저스포츠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스포츠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1]. 스포츠 사고에는 체력단련이나 신체적 접촉에 의한 사고는 물론, 경기 외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운영상의 과실 및 시설관리의 부실 등에 의한 사고를 포괄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 사고는 사고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경기사고, 학교사고, 레저사고로 분류하기도 한다[2]. 이중 산악, 수상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야외교육활동이나 모험활동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레저사고의 경우, 다른 사고 유형과는 다르게 자연이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10건의 해양레저 안전사고에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태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3]. 특히, 지난 2013년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해병대 캠프의 경우 야외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레저사고의 심각성과 우려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본래 야외교육활동은 지난 2007년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라는 ‘신체활동 가치’를 중심으로 ‘자연 체험형’, ‘야외 생활형’으로 구분되어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4]. 이러한 취지 중 하나로 1997년부터 시작된 해병대 체험활동은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5] 지원자 중 청소년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지원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 및 민간인 극기체험 교육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한 가운데 해병대 캠프에 참가하려는 대중적 관심과 지원율이 커지면서 학교, 기업, 관공서 등에서의 참가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 이른바 사설해병대캠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해병대 캠프활동은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극기체험과 신체활동을 통해 전인교육 가치를 강조하는 야외교육활동의 한 영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병대 캠프 체험 활동은 지난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의 사고는 ‘도전’이나 ‘극기’라는 요소를 활용해 참가자의 공동체 의식과 전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했던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쏟아내는 해병대 캠프에 대한 부실운영에 대한 언론의 비난과 질책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경주리조트붕괴사고, 세월호침몰사고 등의 야외교육활동과 관련된 대형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재발하면서 결국 야외 체험학습 축소방침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정부기관 정책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야외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교육학, 여가학, 지리학, 체육학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체육학 분야에서는 야외교육활동을 하나의 체육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려는 시도들을 통해 야외교육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6-9]. 그러나 최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매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야외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레저안전사고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이슈와는 달리 언론은 사고의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에 대한 여론 형성에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 사고에 대한 평가나 처방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은 사고 전부를 보여주기보다는 인식된 몇 개의 측면을 선택·강조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10], 사실의 진위여부조차 기자의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달라져 내용의 변형과 편향화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없게 된다[11]. 이와 같이 언론이 대중에 대한 설득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편향된 목적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는 기술하는 주체에 의한 선택이 불가피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와 이해는 편파적일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언론은 사회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 객관주의적 저널리즘을 추구하기보다는 객관적 실체에 의미를 투영해 사회적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구성은 언론보도에서 이른바 ‘뉴스 프레임(News Frame)’ 혹은 ‘틀 짓기(Framing)’로 나타나게 되는데[12], 이는 언론이 추구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대중들의 사회적 동의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중의 담론형성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 역할에 주목하여, 그동안 야외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보도에서 미디어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전·후 언론의 보도 경향과 태도를 파악해봄으로써 담론을 형성하는 프레임링을 발견하고 사고 발생 전·후의 미디어가 어떠한 사회 맥락적 여론을 형성하여 수용자의 인식의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난 사고 발생 시 미디어 보도 행태

재난보도에 관련한 연구들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후 미디어에 주목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실성을 전파하여할 언론이 본연의 기능적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한다[11-14]. 또한, 사고에 대한 심층적 접근보도로 사후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제언하고 있다[11]. 한편,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를 개선 하고자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4월 처음으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 발표하며 국민적 약속을 한 바 있다[15].

하지만 현재까지 재난보도준칙시행 결과에 따른 긍정적 연구와 사고발생 전과 후의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프레임링(framing) 이론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전후의 보도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2. 미디어의 프레임링 이론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화와 사회변동 속에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언론학, 정치·정책학, 사회·행정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16]. 그중 주목받는 이론 중의

하나가 ‘틀 짓기(Framing)’로 불리는 미디어의 프레임링(media framing)이론이다. 프레임링(framing)의 개념적 해석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언론이 단순한 정보(이슈, 사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정보수용자에게 전달해 수용자의 인식과 의사결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공통된 견해이다. 즉, 사회적 이슈를 다룬 보도에서 언론은 뉴스 프레임을 통해 수용자 개인의 인식, 지각, 규정 등의 판단능력이나 의견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1][12][17].

한편, 사회학자인 Harold Lasswell(1948)을 비롯한 이주용[18] 등은 불특정 대중에게 언론의 특정한 뉴스 틀을 불손한 목적으로 전달하여 수용자의 신념체계(스키마)와 일치하면 여론의 변화 즉, 언론이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디어는 예전과 달리 이미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거나 형성하는 주요한 원천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9]. 이러한 개념들을 근간으로 김성애, 이종혁[14]은 Scheufele[20]모델(프레임 형성, 프레임 구축 등)을 준용하여, 언론수용자가 매스미디어 정보에 의하여 프레임화되는 형성과정의 연구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 매스미디어가 특정 프레임을 만드는 형성과정[10][21]. 둘째, 만들어진 이슈(정보)가 수용자에게 해석되는 구축과정[22]. 셋째, 수용자가 프레임을 보고, 듣고, 느끼며 해석에 이르는 개인적 차원과정.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슈를 발표한 기자가 또 다른 수용자의 입장으로 다시 제작 과정에 반복 투입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프레임링의 연구영역은 넓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오열[23]은 한 가지 단일사례연구(one-shot case study)로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렇듯, 미디어 프레임링 이론은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사고 발생 전·후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야외활동 안전 관련 담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였는지, 그리고 미디어는 일반 대중들에 캠프 참여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사회문화적 담론 형성 과정에 언론이 ‘구성된 현실’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24] 국민여론과 담론의 중심적 역할을 통해 인식의 틀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설해병대캠프’ 사고 발생 전과 후의 야외 교육활동을 바라보는 대중의 담론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둘째, ‘사설해병대캠프’ 활동 관련 안전문화 확산에서 미디어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2. 연구 대상 : 2013년 “해병대 캠프” 사고 사례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충격적 사고가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했던 ‘사설해병대 캠프’를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다. 실제 ‘해병대 캠프’는 극기 훈련을 통한 무한한 도전정신, 자신감 발견이라는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사설해병대캠프 연합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2013년 기준으로 10년간 약 100만 명이 해병대 캠프활동을 수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태안 앞바다에서 청소년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여론과 대중적 반응은 급변전하게 된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경각심 속에 ‘안전’이라는 핵심 아젠다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야외교육활동에 대한 부실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설해병대캠프’, ‘짜퉁 해병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특히, 언론은 해병대 캠프의 위험성 부분과 해병대 캠프활동지도자의 자격요건 제도화와 시설 안전성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해병대, (구)해양경찰청 등의 관계기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법률의 총체적인 재검토와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끌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언론이 해병대 캠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변화와 정책변동에 미쳤을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야외 체험 활동 시,

혹은 안전사고 전, 후의 안전에 관한 미디어프레이밍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3. 연구방법(분석방법 및 절차,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야외교육활동 안전사고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을 고찰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사설해병대 캠프 사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자료수집기간을 해병대 체험 캠프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이 되는,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천안함 폭침 사건 일인 2010년 3월 26일부터 해병대 캠프 사고 발생 후 2013년 7월 21일(약, 3년 4개월)까지로 한정하였고, 이 기간 동안 보도된 자료를 한국 언론 재단이 제공하는 카인즈 (KINDS: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를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은 최초 “해병대캠프” 그리고 “극기”와 “안전”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총 1,616의 (TV 뉴스 포함)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중복된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사건 발생 전 138건, 사건발생 후 73건 등, 총 211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사건 전·후의 언론사 보도 횟수

구분	언론사	보도 횟수	
사건 전	중앙 언론	경향신문사,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MBC, SBS	34회
	지방 언론	경인일보, 경기일보,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강원도민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강원도민일보, 내일신문, 대전일보, 머니투데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이투데이, 이데일리, 인천일보, 아시아투데이, 중도일보, 전북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주간당진시대, 전남일보, 충청투데이, 충북일보, 프라임경제, 파이낸셜뉴스, 흥성신문,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104회
사건 후	중앙 언론	경향신문사,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KBS, MBC, SBS	44회
	지방 언론	대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서울경제, 이투데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헤럴드경제, 투데이코리아, 시사인, MBN뉴스	29회

4.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건 전과 후의 시기적 구분을 통해 변화의 맥락을 읽어 내고자 보도내용에 대한 문장 단위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분류하여 사건 전후의 맥락을 살펴본 [25]의 연구와 제조경기 오십에 관한 뉴스보도를 분석 연구한 [26]의 연구 및 스포츠선수의 부상 투혼 담론을 연구한 [16]의 연구 등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야외체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발생 전과 후로 구분하고,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기타사항으로 범주를 설정하여 기사의 문장 단위 내용을 대입, 유목화 하여 사건 전후의 맥락을 귀납적 방법으로 범주화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뉴스 텍스트 구성에 대한 이론화와 틀짓기 효과 과정에 대한 이론화를 위해 뉴스와 해석적 틀의 이야기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22]에 따라 각 범주 안에 첫째, 표현요소, 둘째, 이야기 구조, 셋째, 함축된 가치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자료의 모든 기사를 10회 이상 읽고 기사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기타사항의 방법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각 범주별 기사 내용을 다시 정독하여 이야기 구조 및 함축된 가치를 범주·세분화하였다. 이렇게 범주화 및 세분화한 내용을 관련 분야 박사 학위자 2명에게 검증을 받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서 진실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5.1 긍정적 보도

(표현요소, 이야기 구조, 함축된 가치 포함)

본 연구사례에 관련하여 옳거나 좋다고 의도적으로 표현하여 정보수용자를 자극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보도 제목을 선정적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둘째, 이야기전개 표현방식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셋째, 강조되는 중심 사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예시 : 건설사 신입사원 업무 마인드 양성에 필수 교육은?[27].
“해병대 병영 체험하니 자신감 생겼어요” [28].
“우리 아이 여름방학 캠프 어디로 보낼까” [29].

5.2 중립적 보도

(표현요소, 이야기 구조, 함축된 가치 포함)

보도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요소 즉,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각기 코딩하여 주제 함수 배열을 통해 문맥상 중심 프레임에 파악해 보았다. 또한, 연구 사례의 단순사실 보도를 포함하였다.

예시 : 해경은 이들 학생이 보트훈련을 하러 먼 바다까지 갔다가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30].

5.3 부정적 보도

(표현요소, 이야기 구조, 함축된 가치 포함)

특정사안에 대하여 강조 또는 선택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 부정적 견해와 경각심, 이해 주체들 간의 갈등적, 경제적 손실, 사건 이후 안전에 관한 대책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기에 속한다.

예시 : 안전사고를 남의 일로만 여기고 기본적인 수칙마저 지키지 않는 한 제2, 제3의 사실 해병대 캠프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31].

VI. 연구결과

태안해병대 캠프사고 사례를 통해 미디어 보도경향과 태도를 파악해 담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프레이밍을 고찰하기 위해 미디어 보도 내용을 사건 전·후로 구분하여 문장 단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 발생 전의 해병대캠프 활동의 469개의 분석대상 중 긍정적 뉴스 보도 문장은 306개(65.2%)에 달하였다. 반면 사건 발생 후의 미디어 프레이밍은 캠프활동에 관한 긍정적 뉴스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건발생일로부터 하루가 지나자 단순사실보도보다 캠프운영상황에 관한 비판과 포괄적 책임론에 더 주목한 편향적 보도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사건 발생 전, 보도 문장 구성

내 용	문장 수	비율(%)
긍정적 보도	306	65.2
중립적 보도	149	31.7
부정적 보도	12	2.5
계	469	100

1. 사건 발생 전 미디어 프레이밍

1.1 긍정적 보도 - 전인교육의 메카(Mecca)

우리나라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끔 교육과정개발 시행하고 있다[32]. 사고가 발생한 2013년도에 교육부는 관용과 배려, 협력이라는 핵심기본 교육목표 하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7대 핵심 덕목(소통, 협력, 존중, 배려, 공감, 정직, 책임)을 정하고 학교당 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주면서 현장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33]. 또한, 중학교 체육교과 과정에서는 첫째. 건강활동 둘째. 도전활동 셋째. 경쟁활동 넷째. 표현활동 다섯째.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36].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신체활동 교육에 중심적 철학의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해병대 캠프의 교육 목표는 어떠한 중심기반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도내용에 나타난 기본 교육 목표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 과정, 협동심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 등 과정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 미화하고 있다[표 3]. 전인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보도는 이러한 미디어의 내용을 수용한 초, 중, 고 학생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일반 참여자들이 해병대캠프를 모든 교육의 중심지로 인식하는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캠프활동 교육과정 목표를 미화했던 기사이다.

도전정신과 불굴의 해병대 정신을 체득하게 해주며 국민교육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교육대장 김원택 원사 “해병대 캠프는 극기와 인내의 대명사로”[35])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에 만족도 높아’

건강한 육체를 기르고 바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해병 대 훈련캠프를 다녀왔으며 이 프로그램은 사상고 1학년만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6].

해병대가 저를 뺏속까지 바꿔놨습니다. 인간은 교육으로 변화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37].

표 3. 해병대 캠프 참여자 및 교육의 목표

참여자	교육 목표	언론사
초, 중, 고 학생	극한의 한계극복, 기초체력단련, 인내, 자신감, 의지력, 강한 정신력, 리더십, 배려하는 마음, 동료애	중부매일, KBS, 중도일보, 충북일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 매일경제
대학생	자기극복, 문제 해결능력, 인재 육성	중도일보, 내일신문, 한국경제
기업인	창조적 도전, 동료간의 팀웍 향상, 자신감, 패기와 열정, 공동체의식, 업무능력 향상, 변화와 혁신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중도일보, 매일경제
가족 단위	단합, 협동심, 자신감, 화합, 인내와 끈기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경상일보, MBC
스포츠 선수단	하면 된다. 안되면 될 때까지, 집중력 향상	매일경제,
정치인	직원들 간의 소통	경기일보

1.2 긍정적 보도 - 집단 따돌림 ‘왕따’ 물러서거나

사회문제의 하나로 지목된 학교폭력, 괴롭힘(왕따) 문제로 정부나 학교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Wee센터 프로그램을 시행 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 희망과 사회적 기회를 주고 있다[38].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교육 지원청은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해병대캠프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중점 목표로 입소시켜 왔다. 반면에 캠프 운영자들은 교육적 가치를 인정한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사업적인 면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대로 진실을 선전하지 아니하고 과대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왕따 마케팅’ 학부모, 학생 불안심리 이용한 학원광고 등 기능,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 업체는 “캠프에 참가하

기만 하면 학교에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39].

학교 부적응 학생에 희망 주는 참 배움터 Wee 센터를 방문하기 전까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만만 가진 가치 없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해병대캠프, 집중 프로그램 등 2주간 경험 했던 Wee프로그램을 통해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40].

1.3 중립적 보도 - 취업 성공전략 '해병대 캠프 입소'

한편, 캠프 지원자는 일반 학생들 이외에도 정치인, 국가대표, 연예인, 기업인, 대학교 교직원 등 사회 각층에서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수료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의 재능을 기계에 빚대는 신조어 '스펙'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험적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야외활동인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세계 경제 불경기에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요즘 기업은 사원들의 교육과정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신입사원들을 해당 기업문화에 맞는 핵심인재로 육성 발굴하고자 합숙훈련, 현장교육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목적으로 극기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동아일보, 2012. 11. 12)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준비생들은 직장채용 평가요소로서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판단하고 해병대캠프에 지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초등학생까지... '스펙 전쟁' 위험수위

B 군은 방학 내내 캠프에 시간을 할애 해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몇 백만 원씩 들여서 보내주는 거라 불평하기도 곤란하다며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스펙을 쌓기 위해 다음 방학 때는 청소년 해병대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다[41].

진에어 조현민 전무, 신입 승무원과 함께 해병대 캠프 참가

조현민 진에어 전무는 혹독한 훈련을 극복하면서 용기와 자신감, 단합력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와 고객을 배려하며 회사에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직원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42].

경제 위기 속 신입사원 강하게 키운다.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43].

해병대 캠프는 팀원 간 결속을 다지고 조직력을 배양하는 데 전통적인 '극기형' 프로그램만 한 게 없다는 것이 인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44].

1.4 부정적 보도 - 음주 행패 해병대 캠프

교육 지원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Wee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해병대캠프 훈련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 당국은 학생들을 속여 강압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몇몇 학생들은 캠프에서 아래의 글처럼 폭력적인 집단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섬에 수련회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힘들게 고생시킨 학교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며 특히, 고등학교 등교 첫날이라 서로 잘 모르는 친구들을 곧바로 데려왔으니 싸움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말했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계 당사자들은 야외체험 활동을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인지하여서인지 이러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야외체험 활동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캠프의 유형도 리더십캠프, 국토순례, 극기 훈련형 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지 위 부적응 학생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관사를 확인하고 검증된 캠프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보도는 2건에 불과하였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활동진흥원(www.yap.or.kr)은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46].

2. 사건 발생 후 미디어 프레임

사건 발생 후의 연구자료 497건 중 야외체험 활동에 대한 긍정적 보도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부정적 보도가 217건 중립적 보도(단순기사)는 280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사건 발생 후, 보도 문장 구성

내 용	문장 수	비율(%)
긍정적 보도	0	0
중립적 보도	280	56.3
부정적 보도	217	43.6
계	497	100

2.1 부정적 보도 - 사건 발생 보도 경향

모든 사고에 따른 보도기사는 진단, 평가, 책임주체, 해결 이야기의 구조과정을 거친다는([17]에서 재인용) 내용을 뒷받침하듯 사건 발생 후의 사례를 분석하면 사건 발생일인 2013년 7월 18일 첫날은 단순사실만 보도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갯고랑에 빠져 학생들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사건 발생 원인을 자연 환경적 요소보다는 인적대형사고로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첫째, 지역주민 경고 무시, 둘째, 안전수칙 무시, 셋째, 캠프운영자의 과실, 넷째, 관리요원의 무자격 등을 제기하는 식의 보도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전국에 있는 캠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사설 해병대캠프시설 양산 문제 등이 보도되며, 관련 문제를 총체적 사회문제로 간주하여 책임주체가 이동하는 모습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극기 훈련' 사설 해병대 캠프는 어떤 곳?

극기심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캠프가 안전관리 부족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나서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47].

태안 캠프참사, 관리기관은 뭐 했나

사설 캠프의 인적구성과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8].

2.2 부정적보도 - 캠프 활동은 예견된 인재

위의 기사와 같이 미디어 프레이밍은 사고 발생원인을 사람의 과실에 의한 인재 사고로 규정,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사고, 정부의 관리소홀 등 어두운 단면을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인식, 묘사하고 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주변 상황을 전달하면서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부실한 사설캠프의 안전관리 대응과 정부의 허술한 감독관리 부분을 일제히 질타했다.

특이한 사항은 중앙언론사 KBS는 문제의 본질인 해병대 캠프에 대하여 “사설”이라는 단어를 구사함으로써 미디어 처음으로 군 관련 해병대 캠프와 야외체험활동인 사설해병대 캠프에 관련한 개념적 정의를 하였다.

“사설 해병대 어떤 곳” [47]

이렇듯 사설 해병대캠프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는 늘 그렇듯이 부정적 미화 프레이밍으로 예견된 인재사고로 규정하고, 안전 불감증 문제를 공론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3 중립적 보도 - 즉각적인 정부 대응

안전에 관한 대비만 철저히 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규정한 미디어 프레이밍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부터 사건과 관련된 주위 상황을 자극적인 기사제목으로 쏟아내며, 부실한 사설 캠프의 안전관리 대응과 정부의 허술한 감독관리 부분을 일제히 질타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여·야정치권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7.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각, 전국 해병대 캠프의 안전 점검을 포함한 실태조사와 시설인가 및 관리 점검에 최선을 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 관련 여론이 들끓자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을 대책본부장으로 급파하여 사건을 정리하게 하고 대응책 일환으로 제5차 안전 정책 조종회의 [49]를 열어 안전에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해병대 캠프 실종자 전원발견 소식에 나승일 차관을 현장에 급파해서 사고대책본부를 만든 후 학교 측의 대처와 미 인증 업체선정 경위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등에 착수하고 있다[50].

3. 야외체험활동 보도 시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대중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경각심 향상 일환으로 언론은 매년 보도를 통해 안전수

칙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51]. 하지만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야외교육 체험활동 부분의 안전성에 관한 보도는 사건 발생 전 단 두건에 불과하였다. 이도, 환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안전에 관한 예방적 과정이 아닌 사고 발생 후 보상에 관한 즉, 보험과 관련된 주의 조치에 불과하였다.

숙박형 캠프일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하고 화재보험 등 안전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29].

하지만, 사건발생 후 미디어는 안전불감증 부분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체험활동 안전 상황을 재점검 하고, 야외교육활동에서 안전의 우려가 있다면 즉각 일정을 취소하고 체험활동 업체를 면밀히 확인하여 불법성 여부, 특히 자격 소지를 한 안전요원의 배치 문제를 반드시 확인 하라고 학교측에 지시 하였다[52].

V. 논 의 : 해병대 캠프와 안전사고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

본 연구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중의 담론형성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동안 야외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보도에서 미디어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고 전과 후의 언론의 보도 경향과 태도를 파악해 봄으로써 담론을 형성하는 프레이밍을 발견하고 미디어가 어떠한 사회 맥락적 여론을 형성하여 수용자의 인식의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한 사례를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보도 시 언론이 사회적 책임자로서 갖는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안전사고 예방을 기반으로 한 야외체험 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병대 캠프사고 발생 전의 일반적 담론에서는 야외체험활동이 인내, 자신감, 협동심,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을 배양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

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정의[4] 중요한 통로로 활용되는 곳으로 인식되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야외체험활동의 가치를 인정한 미디어의 긍정적 담론이 사건발생 후에는 안전에 관련된 시설, 전문요원 배치, 지도관리 부족 등을 내세우며 대중들에게 야외체험활동이 위험하다는 인식의 부정적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프레임에 따른 인지적 해석이 결합하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는 사회적 이슈를 보도함에 있어 미디어프레이밍이 현실의 여러 측면 중 일부를 편향적으로 사용하여 대중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쳐 담론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12][14]와 일치하고 있다. 즉, 사회학적 측면에서 미디어는 프레이밍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의 기틀을 만드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의 참여자가 안전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한 것은 자칫 야외 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로써 관련 산업의 붕괴와 지역 경제 비활성화로 이어질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 매체는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기구적 성격과 동시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이중적 기능[53]에 따라 광고주의 상품을 확대생산하고 문제 발생 시 원인진단, 해석, 책임소재만 밝힐 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제2의 문제에 관해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완수, 배재영의 연구[11]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주 5일제로 인한 야외체험활동 및 레저산업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론매체는 관련내용 보도 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야외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보도 양상은 향후 보도 시 언론의 적절한 역할 모색에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안전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원칙 요소 중 하나인 안전(불프강 조프스키, 안전의 원칙 中)은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첫째, 생리적 욕구 둘째, 안전욕구 셋째, 소속/애정 욕구 넷째, 자기 존중의 욕구 다섯째,

자아실현 욕구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즉, 공포, 위협,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려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다.

따라서, 두 번째 요소인 안전욕구를 충족하려면 평상시 체험자 본인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정부, 언론 등 체험활동자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예방적 측면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발생 가능성의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으로 대변할 수 있다[51].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의 많은 학자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인간의 과오 즉, 실수로 기인한다는 휴먼에러(Human Error) 방지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휴먼에러란 니체가 말한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뜻의 의미로 인간은 때때로 깜박 잊어버리거나 멍한 상태에 빠지거나 착각하여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청소년부터 여성 성인들까지 참여하는 야외체험 활동에서는 더욱더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 형성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사설 해병대 캠프 즉, 야외체험활동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여 새로운 기준과 책임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야외체험활동에 관한 안전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이밍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2013 해병대 캠프 사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병대 캠프 보도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크게 사건 전과 후를 중심으로 대비되었다. 즉, 미디어는 사건 전 긍정적 미화 프레이밍을 형성하였다면 사건 후에는 부정적 프레이밍을 형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전의 프레이밍은 야외체험 활동에 관하여 극기체험을 통하여 인내심과 자립심을 키움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사고 발생 후에는 늘 그렇듯이 안전 불감증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부각시켰다.

둘째, 사고발생 전 미디어의 보도는 야외 교육활동의 긍정적 특성을 강조할 뿐 야외체험교육의 가치 이외의 안전에 관한 위험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건의 원인과 책임규명부분 그리고 인간적 관심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미디어는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볼 수 있다.

셋째, 충격적 사고 발생 후에는 늘 정책적 방안들이 모색된다.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 후속 조치의 경우 즉각적인 행동으로 교육부차관을 본부장으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진행되었다.

넷째, 캠프활동 지원자들은 초, 중, 고 학생들 이외에 스포츠 선수, 정치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 모두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미디어는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양상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미디어의 과도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가치 있는 야외체험활동의 위축과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제언

이러한 미디어의 이중적 보도행태의 프레이밍은 자칫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문화(Safety Culture) 확산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는 야외교육활동 보도 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언론 보도에서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실성, 정확성, 객관성의 기본원칙

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만약 언론이 해병대 캠프 활동을 교육적 가치 부분 이외에 안전을 강조하여 이슈화하였다면 이것이 돈벌이에 의한 사업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야외체험활동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정부는 야외활동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단일화하여 이를 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책임부서를 보면 청소년 활동 인허가를 여성가족부가, 레저 활동 시설에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 교육 부분은 교육부가 각각 맡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수산부가 나누어 맡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해양레저안전에 관한 여러 법률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야외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 연구가 안전사고에 대한 바람직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의 적절한 역할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지민준, "스포츠참여자의 스포츠사고 유형별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논고,"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제8권, 제1호, pp.159-165, 2014.
 [2] 최철호, "스포츠사고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 이론과 판례,"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2008.
 [3] 남도일보, <http://m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788>, 2015.09.08.
 [4] 이주욱, "야외교육의 체육교육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사례연구:국제기국 야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제10권, 제2호, pp.257-284, 2012.
 [5] 정대용, 청소년수련활동의 효과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해병대캠프 활동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 이주욱, 류태호, 이병준, "중등학교 야외교육활동 체험의 교육적 의미," 한국체육학회지, 제47권, 제4호, pp.137-148, 2008.
 [7] 김진희, "어린이놀이터의 유아놀이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제10권, 제1호, pp.9-17, 2009.
 [8] 이주욱, "체육교육에서 '여가의 가치' 실현을 위한 야외교육 활동의 사례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2011년 2호, pp.52-70, 2011.
 [9] 이정은, 박경호, 모험교육의 개념, 한국미래교육학회, 2014.
 [10] R. Entman,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pp.51-58, 1993.
 [11] 이완수, 배재영,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방식," 한국언론 정보학보, 통권 제71호, pp.274-298, 2015.
 [12] 성시윤, "메가 이벤트에 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 분석,"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2호, pp.193-222, 2014.
 [13] 박동균, "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본 재난보도의 문제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5, p.242, 2009.
 [14] 김성애, 이종혁, "뉴스프레임과 수용자 스키마 일치가 프레임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대학생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제55권, 제2호, 2011.
 [15] 한국기자협회, 정관, 재난보도준칙,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2016.07.30.
 [16] 임승엽, 박재우, "한국스포츠의 부상투혼 담론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링 고찰: 2010 U-17 여자월드컵 보도사례분석," 한국스포츠학회, 제10권, 제3호, pp.103-114, 2012.
 [17] 이한별, 북한인권법 쟁점과 이슈 프레임링 분석: 제19대 국회 북한인권법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

- 교, 석사학위논문, 2015.
- [18] 이준웅, “언론의 틀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pp.100-135, 1997.
- [19] 백선기, 백은정,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경향과 이데올로기 기호학 연구, 제29집, p.230, 2010.
- [20] Scheufele,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pp.297-316, 2000.
- [21] Erving,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22] 이준웅,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뿔,”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5권, 제1호, 2009(6).
- [23] 전오열, 뉴스프레이밍이 수용자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햇볕정책과 언론자유에 대한 신문기사와 제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24] 박재우, “돛구장, 약인가? 독인가? : 미디어에 나타난 돛구장 건설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7, p.380, 2012.
- [25] 이오현, “‘위기’ 부추기기 : 북한 핵문제에 대한 〈New York Times〉의 보도태도,” 언론가학연구, 제2권, 제3호, pp.185-212, 2002.
- [26] 박보현, 임변장, “잃어버린 금메달: 2004 아테네 올림픽 체조경기 오심에 대한 미디어 텍스트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제19권, 제1호, pp.117-131, 2006.
- [27] 프라임경제, ‘건설사 신입사원 업무 마인드 양성에 필수 교육은’, 2012.01.18
- [28] 경남신문, ‘해병대 병영 체험하니 자신감 생겼어요’, 2012.05.07.
- [29] 한국일보, ‘우리 아이 여름방학 캠프 어디로 보낼까’, 2012.06.05. SBS뉴스 속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서 고교생 5명 실종’, 2013.07.18.
- [30] 경향신문, 교육부 태안사고 현장에 사고 대책본부 설치, 2013.07.19.
- [31] SBS뉴스 속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서 고교생 5명 실종’, 2013. 07. 18.
- [32] 법제처, 교육기본법 제 2조, <http://www.law.go.kr>, 2016. 05. 20.
- [33] 교육부, 현장체험활동 학습운영, <http://www.moe.go.kr/newsearch/search.jsp>, 2013.
- [34] 강신복, 체육과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2007.
- [35] 세계일보, 해병대캠프, 국민교육의 도장으로 각광, 2013.01.16.
- [36] 한겨레신문, 학생중심 맞춤형 수업에 만족도높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14933.html>, 2012.01.16.
- [37] 매일경제, 왕따 고교생, 해병대 갔다와서 친구들과 만나더니, 2012.09.30.
- [38] 대전일보, 학교부적응 학생에 희망주는 참 배운터, 2012.01.31.
- [39] 동아일보, ‘왕따 마케팅’ 학부모-학생 불안 심리 이용한 학원광고 등 기승, 2012.01.17.
- [40] 대전일보, 학교부적응 학생에 희망주는 참 배운터, 2012.01.31.
- [41] 헤럴드 경제, 초등학생까지 ..‘스펙 전쟁’ 위험수위, 2012.07.16.
- [42] 매일경제, 진에어 조현민, 신입 승무원과 함께 해병대 캠프 참가, 2012.10.30.
- [43] 국민일보, 경제 위기속 신입사원 강하게 키운다..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만발, 2012.11.11.
- [44] 프라임경제, ‘건설사 신입사원 업무 마인드 양성에 필수 교육은’, 2012.01.18
- [45] 경기일보, 교관 패고 · 음주행패, ‘난장판 해병캠프’, 2012.03.09.
- [46] 한국일보, ‘우리 아이 여름방학 캠프 어디로 보낼까’, 2012.06.05.
- [47] KBS, ‘극시훈련’ 사설 해병대 캠프는 어떤곳?,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693489>, 2013.07.18.
- [48] 시사인, 태안 캠프 참사, 관리기관은 뭐했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91>, 2013.07.19.

- [49] 국가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1&query=#main.html>, 2016.05.02
- [50] 경향신문, 교육부 태안사고 현장에 사고 대책본부 설치, 2013.07.19.
- [51] 김갑선, 이영현, “수상안전사고 실태와 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 1998년-2000년 전국익수 사고자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Vol.5, 2001.
- [52] SBS, 교육부 체험활동 안전상황 재점검, 2013.07.19
- [53] 김종수,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도서출판 한울, p.154, 2004.

저 자 소 개

이 우 진(Woo Jin Lee)

정회원



- 2009년 8월 : 광운대학교 생활체육 전공(석사)
- 2015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박사 수료)
- 2016년 ~ 현재 : 한양대학교생활스포츠 학부 겸임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정책, 해양레저안전

임 태 성(Tae-seoung Lim)

정회원



- 1981년 :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체육학사)
- 1985년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3년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이학박사)

▪ 2014년 ~ 현재 : 한양대학교 예체능 학장

<관심분야> : 사회과학, 체육정책